

buddhanews.com

망월사역-망월사

망월사는 도성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만월을 보는 사찰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년) 해호 스님이 왕실 용성을 기리고자 창건했다. 신라 월성을 바라보며 기원해 '망월'이라고도 한다. 대웅전 동쪽 토기바위와 남쪽 달 모양 월봉(月峰)이 있어 마치 토기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해 망월사로 불린다는 설도 있다. 대웅전은 없이 낙가보전(洛迦寶殿)에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가는 길: 1호선 망월사역 2번 출구-도보 10분-망월사



양산역-통도사

통도사는 법보(法寶) 해인사, 승보(僧寶) 송광사와 함께 불보(佛寶)를 지닌 삼보사찰(三寶寺)이다. 646년(선덕왕 15)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진신사리(舍利)와 가사(袈裟), 대장경 등을 금강계단에 최초로 봉안하고 창건한 절이다.

이후 신라 율종(律宗) 근본도량으로 승단의 중심이 됐다. 영축산은 산의 형세가 부처님이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붙여졌다.

가는 길: 양산역 4번 출구-12-1번, 63번, 67번 버스-통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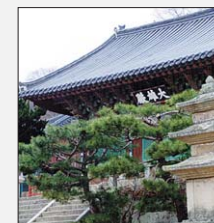


범어사·남산동역-범어사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678년) 의상대사가 해동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래현 금정산에는 금빛을 띤 우물이 항상 가득 차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금어가 하늘에서 내려와 놀아 금정산 범어사라고 명칭됐다.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 3대사찰인 범어사는 경허 용성 성월 만해 동산 등 고승들이 수행정진한 명찰로 선종본찰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남산동은 일대가 범어사 사전(寺田)으로 범어사에서 보면 남쪽 산등성이라 해 남산동이라고 불렀다.

가는 길: 1호선 범어사역 5·7번 출구-90번 버스-범어사



회룡역-회룡사

'회룡'은 '왕이 돌아왔다'의 의미다. '회룡사'는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법성사'로 무학 대사는 1394년 정도전의 시기로 이곳 인근 토굴에 피신해 있었다. 1398년 '동북면병마사'로 태조가 요동출진을 하자 무학 대사는 손수 관세음보살상을 모시며 축원했다. 그 뒤 1403년 태조가 이곳을 찾아 중창 후 절 이름을 회룡사로 고쳤다. 의상 대사 사리 1과를 모신 오층석탑, '무학골'로 불리는 천연동굴, 김구 선생이 상해 망명 전 은신한 '석굴암'이 있다.

가는 길: 1호선 회룡역 2번 출구-도봉산국립공원탐방센터-회룡사



서면역-선암사·삼광사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자리한 선암사는 신라 문무왕 15년(675)에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 견강사(見江寺)로 명칭됐지만, 뒷산 절벽에서 국산 화랑도들이 수련해 선암사로 부르게 됐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관음전 등이 배치된 정토도량이며 석축 위 동백나무가 매우 수려하다. 용왕전 폭포와 신선대의 절경 또한 유명하다.

가는 길: 1호선 서면역-17, 23, 88, 169번 버스-선암사



해운대역-해동용궁사

해운대 인근 기장에는 해동용궁사가 있다. 용궁사는 고려 1376년(우왕 2) 공민왕 왕사인 나옹 스님이 가뭄 극복을 위해 창건했으며, 산 이름을 봉래산, 절 이름을 보문사라 했다. 임진왜란 당시 병화로 소실됐다가 1930년 통도사 운강 스님이 중창했다. 1974년 정암 스님이 관음도량으로 복원하고 해동용궁사로 개칭했다. 단일 석재 최대석상인 해수관음대불, 동해 깃바위 부처인 약사여래불 등이 있다.

가는 길: 해운대역-181번 버스-해동용궁사



청량리역-청량사

청량리는 청량사(淸涼寺)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맑고 서늘하다'는 청량사는 예부터 도성사람들의 피서지였다. 청량사 인근에는 사니사(四尼寺) 중 하나인 '돌꽃이승방'이 있었으나, 명성황후의 흉흉이 승방자리에 정해지며, 폐허가 된 청량사로 옮겨 중창된다. 일제 치하 많은 애국지사, 고승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으로 만해 스님이 한때 머물러 1939년 회갑연도 열렸다. 같은 시기 불교계 학자인 박한영(朴漢永)도 기거해 청량사 현판, 주련 등에 작품을 남겼다.

가는 길: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홍릉공원 방면 도보 12분-청량사



보문역-보문사

보문역과 보문동은 보문사(普門寺)에서 유래했으며, 보문사는 '탑골승방'으로 미타사, 청량사, 청통사와 함께 사니사(四尼寺), 또는 사승방으로 불렸다. 사니사는 조선왕실 후궁 등 여인들과 깊은 인연이 있어 역불승유에도 사대문 인근에 남았다. 조계종 사찰이었으나 1972년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 보문종 본산이 됐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본 딴 석굴암이 조성돼 있으며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중도, 지장보살도는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98, 99, 100호다. 보문사 초입에는 사니사 중 하나인 미타사가 있다.

가는 길: 보문역 1번 출구-도보 7분-보문사



대전 유성온천역-동학사

계룡산은 산세가 웅성하고 풍경이 빼어나 마곡사, 갑사, 동학사 등 등산객이 찾는 사찰이 많다. 동학사는 신라 성덕왕 724년 상원사로 창건돼 937년 신라말왕 후 신라시조 초혼제를 지내며 동학사로 개칭됐다. 전 왕조 충혼을 달래는 국가기능을 지녀, 경내에 속모전과 삼문각이 있다.

가는 길: 1호선 유성온천역 6번 출구-107번 간선버스-동학사



대구 아양교역-동화사

대구 팔공산에는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를 비롯해, 갖바위 선본사, 파계사 등 유수의 사찰이 있다. 이중 동화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대표적인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 활동 등 호국불교 전통이 서려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통일의를 담은 동양최대의 석조약사여래대불이 봉안돼 있다.

가는 길: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급행1번, 801번, 105번-동화사(갖바위104번)



광주 증심사입구역-증심사

증심사는 광주 동구 무등산 서쪽에 위치한 통일신라 사찰이다. 송광사 말사로 1986년 11월 1일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됐다. 한국전쟁 때 원형을 잃었지만 재건돼 광주지역 대표사찰로 손꼽힌다. 오백전과 7층석탑,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 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돼 있다.

가는 길: 1호선 증심사입구역-첨단9번, 지원35, 지원50, 51, 54, 봉선 76번-증심사



중국직산법화원 방생법회 초대

한중불교교류행사 & 중국불교성지순례 SK투어 ☎1600-4226

Event schedule for the China Buddhist Law Flower Temple放生法會. It lists dates from the 1st to the 5th, including activities like visiting the temple, receiving sutras, and participating in rituals. A price of 4박 5일 ₩ 399,000 is also mentioned.

국내 방생법회 행사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 [2009년 4월 23일 ~ 7월 31일까지]

Advertisement for SK Tour's放生法會 event. It features images of the event and buses, and lists special offers: '어버날 특선 중국크루즈여행 5일 (5월 7일 출발) 399,000원' and '제주도 3사순례행사 약천사/관음사/천왕사 (매주 화, 목, 일 출발) 259,000원'. The contact number 1600-4226 is prominently displayed.